

* 백일기도 1 정오표(3쇄와 해설책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) *

회차	수정 전	수정 후
6회	<p>문 18. 지문 기호 누락</p> <p>면접자: 작년 학술제에 참여했나요? 학생: ㉠ 올해 전학을 와서 처음입니다. 면접자: 학술제 운영진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학생: ㉡ 저는 작년 학술제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이 ~ 면접자: 그렇군요.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? 학생: ㉢ 소수 학생들만의 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어 ~ 면접자: 그랬군요. 학술제 세 분야 중 ~ 학생: ㉣ 저는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. ~</p>	<p>면접자: 작년 학술제에 참여했나요? 학생1: ㉠ 올해 전학을 와서 처음입니다. 면접자: 학술제 운영진으로 지원한 이유가 무엇인가요? 학생2: ㉡ 저는 작년 학술제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이 ~ 면접자: 그렇군요. 어떤 점이 아쉬웠나요? 학생2: ㉢ 소수 학생들만의 발표 중심으로 진행되어 ~ 면접자: 그랬군요. 학술제 세 분야 중 ~ 학생1: ㉣ 저는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. ~</p>
9회	<p>문8. 중복 문항 교체</p>	<p>문 8. 다음 글에서 <보기>가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?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보기></p> <p>세균이나 하등 동물과 같은 단세포 생물체는 노화가 나타나지 않는 반면,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.</p> <p>생물학적 노화는 시간에 따라 내재적이며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인 퇴화 현상이다. 그러나 모든 생물체가 노화를 겪는 것은 아니다. (㉠) 그렇다면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? (㉡) 1961년에 레너드 헤이플릭은 인체 세포의 세포 분열 능력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. (㉢) 그는 세포를 최적의 조건에서 배양하더라도 60~70 차례쯤 분열하면 세포 분열을 멈추고 노화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알아냈다. (㉣) 이와 같은 정상 체세포의 세포 분열한도를 '헤이플릭 한계'라고 한다. 이는 세포 분열이 거듭됨에 따라 염색체 말단의 길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.</p>
25회	<p>문 2. 지문 오타 ㉢ 동생을 어제 보던 영화를 오늘 이어서 본다.</p>	<p>㉢ 동생이 어제 보던 영화를 오늘 이어서 본다.</p>
25회	<p>문 7. 선지 ㉢ ㉣: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다.</p>	<p>㉢ ㉣: 피상속인이 유언이 없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상속받은 재산만큼만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상속받지 않는다.</p>

29회	문 4. ① ㉞은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'그래서'로 바꾼다.	문 4. ① ㉞은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'그러나'로 바꾼다.
정답 해설 9회	<p>문8. 중복 문항 교체로 인해 정답과 해설 교체</p> <p>① [독해(비문학) - 배치]</p> <p><보기>는 단세포 생물체와는 달리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내용이다.</p> <p>(가) 이전에는 생물학적 노화의 개념을 설명한 뒤 모든 생물체가 노화를 겪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. (가) 이후에는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시한다. 따라서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<보기>는 (가)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.</p> <p>(나) 이전에는 다세포 생물체에서만 노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(나) 이후에는 헤이플릭의 발견을 제시한다. 따라서 <보기>가 (나)에 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않다.</p> <p>(다) 이전에는 헤이플릭의 발견을 제시하고 (다) 이후에서 그 발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. 헤이플릭이 어떠한 발견을 했는지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므로 <보기>는 (다)에 들어갈 수 없다.</p> <p>(라) 이전에는 헤이플릭의 발견 내용을 설명하고 (라) 이후에는 '헤이플릭 한계'의 개념을 설명한다. 단세포와 다세포 생물체의 차이를 설명하는 <보기>가 (라)에 들어갈 여지는 없다.</p>	
정답표 18회	문19. 정답 ③	문19. 정답 수정 > ②
정답 해설 29회	<p>▶ 1쇄 2쇄 문제지 기준 복수 정답 ①, ④</p> <p>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'그러나'와 같은 접속 부사를 써야 한다. '따라서'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, 이유,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.</p> <p>④ 내용상 '생각해 보아야 한다.'의 주어는 '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을 줄이겠다고 하는 친구들'이다. 따라서 '친구들' 앞에 한정 대상을 의미하는 지시어를 넣어 '그 친구들'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.</p> <p>[오답해설]</p> <p>② ㉞은 자투리 시간의 학습 효율이 높은 이유를 밝힌 문장이다. 그러므로 ㉞은 ㉞의 위치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.</p> <p>③ 이 글은 '자투리 시간을 활용한 공부법'을 소개한 것인데, ㉞은 이와 관련이 없어 글의 흐름으로 볼 때 불필요하므로 삭제해야 한다.</p> <p>▶ 3쇄 기준 정답 ④</p> <p>내용상 '생각해 보아야 한다.'의 주어는 '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잠을 줄이겠다고 하는 친구들'이다. 따라서 '친구들' 앞에 한정 대상을 의미하는 지시어를 넣어 '그 친구들'이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.</p> <p>[오답해설]</p> <p>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앞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'그러나'와 같은 접속 부사를 써야 한다. '따라서'는 앞에서 말한 일이 뒤에서 말할 일의 원인, 이유,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접속 부사이다.</p> <p>② ③ 위와 동일</p>	